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장방문평가단 방문

총 강평회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이뤄져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장방문평가단이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 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위탁했다. 실질적인 평가는 대교협의 부설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실시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에 선정되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대학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보증으로 취업의 문이 넓어진다. 또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이 제거된다. 이번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장방문을 위해 우리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년 반 전부터 자체평가로 준비해 9월 13일 평가원에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체평가는 기획위원회, 연

구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진행했다. 기획위원회는 총장, 대학본부 차장과 관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연구위원회는 12명의 교수로 구성되었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33명의 교직원들로 형성됐다. 윤구(기회전략팀) 과장은 "이번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장방문을 위해 직원들과 교수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했다"고 전했다. 11월 1일 미래관 DLC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상호협의회가 개최됐다. 협의회에서는 현지방문에 대한 총 강평이 이루어졌다. 방문평가단은 김태원 교수(순천향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를 주축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김태원 방문평가단원장은 "이번 방문평가를 통해 한성대학교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몇몇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좋았다"며 "교수의 40%가 조교수로 연봉이 적고 직원의 40%가 계약직인데 반해 애교심이 매우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평가는 총 6개의 영역으로 진행됐다. 6개의 영역은 대학사명 및 발전, 교육, 구성원, 교육시설, 재정경영, 사회봉사이다. (차례대로 1영역에서 6영역이다.) 1영역에서 교육목표는 비교적 좋았다 등의 좋은 평을 내렸다. 하지만 계획은 좋으나 실천한 흔적을 보기 어렵다는 평을 내렸다. 2영역에서 강점은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 등이 있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수강신청시 '장바구니제도'같은 제도가 없어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3영역에서 3영역으로 평해진 점은 연구년제도, 높은 애교심, 지도 상담과 개인진로상담 구축 등이 있었다. 개선할 점으로는 국제적인 연구실적과 특색실적이 미흡하고 학생 개인 상담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4영역에서의 강점은 도서관과 같은 공간을 지역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었다. 아쉬운 점은 구호와 안전 관련 규정이 오래되었고 출입



▲ 대학기관평가인증 총 강평회가 진행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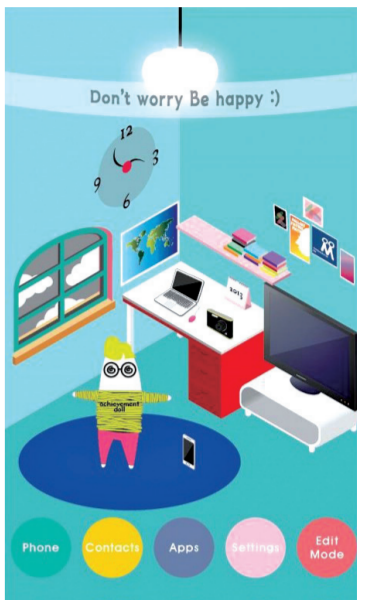
구가 하나 밖에 없는 강의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5영역에서는 재정 편성 및 집행과 감사는 흡집을 갖지 않았고 평을 받았지만 재정 확보 측면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6영역에서는 장점으로 최대 5학점까지 사회봉사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았고 개선할 점에는 연간 계획서와 보고서가 없다는

것을 꼽았다. 이번 평가는 총 80여개의 대학에서 진행됐으며 대학기관인증평가 선정대학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우리학교가 노력한 만큼 올해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으로 선정되길 기대해본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컴퓨터공학과 Late But Lucky,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지난 10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전국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K-해커톤) 대회'에서 우리학교 컴퓨터공학과인 'Late But Lucky'팀이 최우수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Late But Lucky'팀은 휴대폰 홈스크린의 구성의 런처를 제작했다. 이들은 창의성, 시정성, 완성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들이 만든 앱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하는 런처로 각 화면마다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벽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가구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각 가구마다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매치시킬 수 있다. 가구 외에도 아바타 역시 화면에 배치할 수 있다. 아바타는 연락처와 연결되도록 제작되었다. 아바타를 특정인물로 지정하면 특정인물의 소셜네트워크, 연락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세지 내용이 아바타가 말하는 것처럼 말소리 안에 문자메세지 내용이 보이게 된다.



▲ 장관상을 수상한 Mate Luncher

제5개의 권역별로 치른 2번의 예선대회와 본선대회를 거쳐 최종 22개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K-해커톤'이라고도 불린다. 해커톤은 평소 생각하던 아이디어를 하루 동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대회이다. 해커톤은 페이스북 사내에서 처음 유행하게 된 행사로 현재는 많은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해커톤 대회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권섭 학생은 "첫 예선 때만 1박 2일로 앱을 제작하고 본선과 결선에서는 발표를 했다. 첫 예선은 제한시간과 경쟁해야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물려오는 잠 때문에 힘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Late But Lucky'팀은 우리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으로 김권섭(컴공 4) 학생, 김성현(컴공 4) 학생, 나동규(컴공 4) 학생, 유종원(컴공 4) 학생이 속했다. 팀장인 김권섭 학생은 "이번 대회는 현재 학교에는 계시지 않지만 1학기까지 지도교수님이셨던 이민석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참가하게 되었다"며 "Late But Lucky"는 "늦어도 괜찮아"라는 뜻이다. 팀원 모두 4학년인데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많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고 성공하자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는 전국에서 68개의 대학 135팀(총 526명)이 참가했고 총청, 호남, 수도권, 영남,

마지막으로 김권섭 학생은 "가장 고마운 분은 이민석 교수님과 정인환(컴퓨터공학과 학과장) 교수님이다. 또한 팀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를 팀장으로 믿고 따라준 팀원들에게 고맙다. 1회 대회 수상이라 의미도 있고 학교의 이름을 알릴 수 있어 좋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논란이 된 이중성적증명서, 우리학교는 이미 시정해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일부 대학들의 이중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 340개의 대학의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236개 대학 중 성적증명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대학이 70곳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70개의 대학 중 우리학교 역시 속해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김희정 의원은 "부정한 학점상승은 학점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져와 취업시 변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정당한 학점을 받은 학생이 성적세탁을 받은 학생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성적세탁은 결국엔 대학이 사회의 불공정행위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 이중성적증명서는 성적증명서를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구분해 발급한 것을 말한다. 열람용은 본인의 모든 학사과정의 취득성적을 표기하는 방식이며, 제출용은 F학점 미포함, 학점포기 미포함, 재수

강 표기 및 이전과목 성적을 미포함한 표기 방식이다. 이중성적증명서는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계기로 만들어졌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정말 이중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학교 측은 이중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급 해당 학생은 10학년 학생들까지라고 해명하고 있다. 전장배(학사지원팀) 팀장은 "이중성적증명서를 처음 시행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며 "그러나 이중성적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니 학생들이 F학점을 받아도 개의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성적세탁이라는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학교는 2010년 이후부터 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제출용 성적증명서에는 F학점은 표기되어있지 않지만 평균학점에는 포함되어 평균학점은 열람용 성적증명서와 동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11학년 이후부터는 이중성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데 선배들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11

1. 10학년 이전학생의 경우
총평결계
총 득학점수 = 총평점 평균
2. 11학년 이후학생의 경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총평결계
총 신청학점수 = 총평점 평균

▲ 학점계산방법
학번 이전에는 F학점을 받으면 재수강을 할 수 없었고 제출용 성적증명서에는 '재이수'라고 표기되었다. 하지만 11학년 이후부터는 F학점 과목 역시 재수강할 수 있고 그 전 기록은 사라진다. 전장배 팀장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이 바뀐 이후 학생들의 취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재이수는 들었던 과목의 성적이 모두 표기되며 재수강은 전에 받았던 학점은 사라지고 새로운 학점만 성적증명서에 표기된다. 우리학교는 이중성적증명서가 문제 시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하였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2014년도 수시 1차 20.59:1 경쟁률 보여



▲ 지난 10월 20일에 진행된 실기우수자전형의 실기고사의 모습

지난 1일 2014년도 수시 1차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수시 1차는 총 모집 인원 701명에 14,431명이 지원했으며 20.59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272명이 증가했고 경쟁률 또한 증가했다. 전공적성우수자전형에 가장 많은 지원인 10,587명이 지원했으며 실기우수자전형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정원 내·외 특성학교졸재자전형은 36명을 모집했지만 지원

인원이 9명에 그쳐 정원미달로 마감됐다. 분석결과 전공적성우수자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는 컴퓨터공학과(주)였다. 실기우수자전형은 42: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학생을 더 모집했지만 주간에 지원자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시 2차 접수는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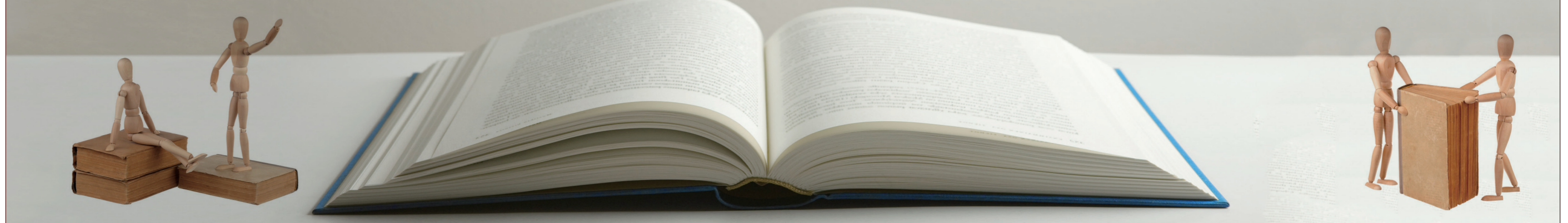
지면 안내

- 2 시험기간 불법사업 논란
- 3 음식점, 어떤 곳을 갈까?
- 5 최승락 동시통역사를 만나다
- 7 추억의 향이 느껴지는 다방이야기

제28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접수마감 : 2013년 11월 11일(월) 오후 7시까지
 참가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 자유
 제출형식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 (5편 이상)
 제출장소 : 학생회관 제 1별관 한성대 신문사(우편취급소 건물 2층)

발 표 : 12월 2일(월)
 시상내역 : 단편소설 - 60만원 및 상패 / 시 - 40만원 및 상패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원고 곁봉에 한성문학상 응모작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작은 12월 2일에 발행하는 한성대신문 제 484호에 게재됩니다.
 ※ 문의사항 : 02) 760-4186 (신문사) / 010-5473-2642 (편집국장)



복지사업 불법논란, 본교 규정집을 알아보다

모순되어 보이는 본교 규정집, 상세화의 필요성 보여

본교 학생들이라면 학생회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보거나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아왔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복지사업은 중간고사기간에 있었던 간식 및 아식배부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시험준비를 위해 열람실에서 밤을 새본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식을 받아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가? 학칙(2013년 기준) 제3장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조항 중 제15조 ③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종료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복위의 아식배부사업이 학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복위는 학칙 제15조 ① 모든 행사는 행사집회신청원을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거하여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았다. 즉, 두 조항 간에 모순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몇 주 전 페이스북에 게시돼 뜨거운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최민이(기획전략팀) 팀원은 "학칙이 잘못 된 것은 없다. 제15조 ①에서 보듯이 사업의 구분은 학생지원처의 권한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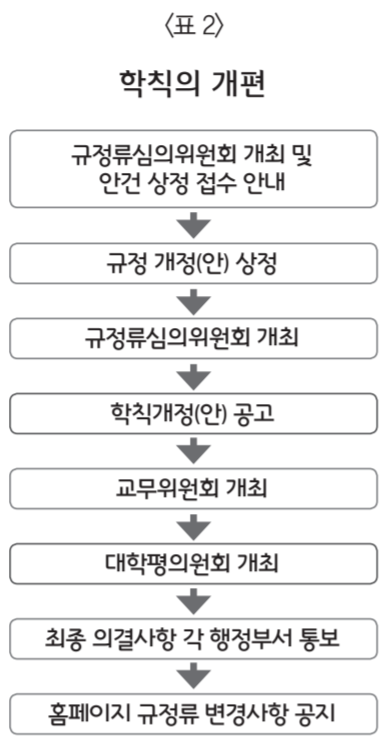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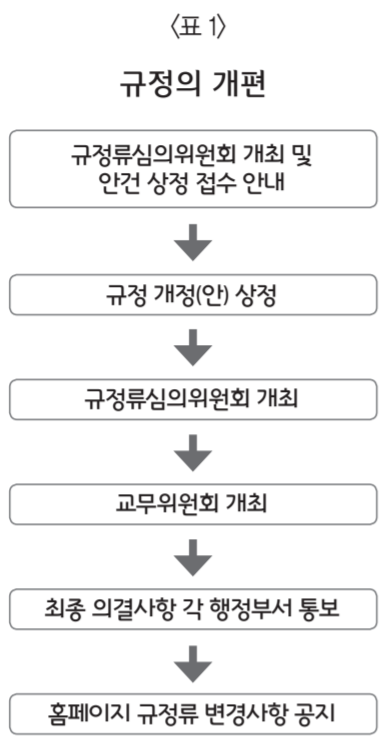
모든 학생회의 사업들은 학생지원

처를 거치게 된다. 학생지원처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에 통과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제재당하는 사업들은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외부회사의 광고나 학생회의 사업 중 외부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학칙들의 개편과정은 어떻게 될까? 학칙 및 규정의 개편은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규정집은 2년 단위로

만들어진다. 규정집*의 개편 방법은 <표1>, <표2>와 같다. 규정의 개편은 교수, 직원, 기획처장이 참여 대상이며, 학칙의 개편은 규정개편의 참여자에 학생, 동문 및 외부인사가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최종 개정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된다.

<표2>를 보면 <표1>과는 다르게 '학칙개정(안) 공고'와 '대학평의회의 개최'가 추가된다. 학칙개정(안) 공고는 교무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공지하여



일반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대학평의회의'는 학생회 임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학생회 복지사업 불법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애매한 학칙의 명시 때문이다.

이에 최민이 팀원은 "학칙이나 규정이 포괄적인 면이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기관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한 학생회는 이와 같은 일에 명들 뿐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논란에 '묵묵부답'이란 카드보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란을 명명백백 설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학생회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규정집 : 학칙과 규정으로 구성된 책, 학칙은 규정의 상위법임.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간추린소식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직과 특강 열려

지난 10월 28일 미래관 DLC에서 교직과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2011년에도 본교에서 특강을 했던 안병환(중원대) 총장이 특강을 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다문화 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강의 목적은 교직과정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형성하여 세계적 시각과 보편적 시각에서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병환 총장은 특강에서 다문화가 무엇인지,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한 학급의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될 것이다. 문화가 다른 이들이기에 교육자의 수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우수강의 수필공모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우수강의 수필공모전'을 시행한다. 이 공모전은 우수강의 사례 발굴을 통해 강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행된다. 작성방법은 '감동 강의'에 대해 수필형식으로 쓰면 된다. 단, 수필이라는 양식을 감안하여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색깔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주제로 한 수필이어야 한다. 응모 대상은 2013년도 1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한 본교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생 제외)이다. 심사결과발표는 2013년 12월 첫째 주 이후이며 시상은 2013년 12월 둘째 주 예정이다. 최우수상, 우수상,佳作를 각각 시상하며 각 상에 걸맞은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사항은 교육개발연구원(760-5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성대학교와 한국행정학회 주최 공동학술세미나 진행해

오는 15일 3시부터 2시간동안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비판행정연구회에서 공동학술세미나가 본교 학습관 206호에서 진행된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비판행정연구회가 주최하고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지방의 재발견'이다.

세미나는 권해수(한성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종수(한성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세미나가 진행된다. 한인섭(조선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총 3명의 교수가 발표한다. 발표 후 전주상(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를 포함해 총 3명이 토론을 한다.

문의사항은 김찬성 연구원(010-7290-5777)에게 문의하면 된다.

본교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 개최해

오는 11월 산학협력단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진행한다. 이 대회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2단계에 걸쳐 심사한다. 11월 15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후, 11월 20일 미래관 DLC에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가진다.

참가부문은 작년과 달리 혁신 아이디어와 창업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시상도 개별 심사한다. 이 대회는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 산업진흥원의 캠퍼스 CEO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순선(산학협력단) 과장은 "특정 학생은 창업진흥원 전문학교와 전문가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창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며 "단순한 아이디어, 취업목적, 퇴직이후의 대비하는 삶 등 지원할 수 있는 동기가 많고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관심있는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참가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동정란

최현근(행정학과) 교수 최 교수는 SSCI학술지 미국행정학회보 2013년 9/10월호에 「The Adoption and Abandonment of Council-Manager Government」 논문을 게재했다.

이상혁(언어교육원) 교수 이 교수는 지난 10월 23일에 문화역서울 284 다목적홀 2에서 '과거·한글, 한국어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미래관 모니터 교체해



▲ 시설지원팀은 미래관 106호, 107호, 108호, 109호(자유 실습실)의 모니터를 10월 넷째 주 동안 새 것으로 교체했다. 2011년에 설치했던 모니터의 30%가 노후해 총 240여대를 교체했다. 본교 컴퓨터가 탐구관에 있음에도 미래관을 우선적으로 바꾼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김두영(시설지원팀) 과장은 "미래관 본체와 키보드는 12월에 교체될 것"이며 "탐구관의 컴퓨터는 내년 3월에 바꿀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pshy13@hansung.ac.kr

셔틀버스 운행시간 알고 이용하시나요?

번호	학기중	방중
학교→상선교	오전:08:00~10:30(3대 수시운행) 점심:12:00~13:00(1대 수시운행) 저녁:17:00~19:00(2대 수시운행)	오전:09:30~10:30(2대 수시운행) 점심:12:00~13:00(1대 수시운행) 저녁:16:30~17:30(2대 수시운행)
학교→대학로	점심:13:00(학교출발)→13:10(대학로출발)(1대 1회 운행) 오후:15:00(학교출발)→15:10(대학로출발)(1대 1회 운행) 저녁:18:00(학교출발)→18:10(대학로출발)(1대 1회 운행)	(대학로→학교방중) 12:00(대학로출발 1대 1회 운행)
비고	대학로출발은 혜화역 4번출구 앞의 에듀센터정문에서 출발합니다. *상기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학과 및 기타 학교 행사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일 운행시간은 정문 수위실에 문의 바랍니다.	

▲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당신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 걸어서 올라갈지, 마을버스 아니면 셔틀버스를 탈지 말이다. 마을버스 줄은 길고 걸어가기는 촉박하다. 그러나 아침에 자주 보이던 셔틀버스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다. 셔틀버스를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셔틀버스의 정확한 배차 간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또한 우리학교는 25인승과 32인승 셔틀버스를 보유

하고 있다. 구자운(총무인사팀) 과장은 "셔틀버스는 인원과 도로사정에 따라 유동적이게 운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전 시간 때에는 주로 25인승을 배치한다. 34인승이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할 수 있지만 학교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25인승이 34인승보다 더 빨리 학교로 진입할 수 있어 차량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셔틀버스를 학교에서 한성대입구역까지, 학교에서부터 대학

로 평생교육원까지 운행한다. 원래 두 구간의 운행시간은 같았지만 평생교육원측의 요청으로 이번 학기부터 변경되었다. 올 초에는 보문역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구간을 임시 운영했지만 탑승인원이 미비한 관계로 운영을 중지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자세히 알아보고 알차게 이용해보자.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Creative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2013년 제7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 취지 ◆

1.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2. 지정 주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문제 해결 능력
3.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과 발표 능력 향상

지정 주제 (택 1)

1. 최근 대두 되는 힐링(치유, Healing)이라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 및 개인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기
 2. '꽃보다 할배'라는 TV 프로그램과 관련한 글을 읽고, 우리 사회의 단면을 분석한 후,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 문제와 연계해서 발표하기
- * 지정 주제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반드시 숙지할 것

● 대회 일정

1. 예선 접수 : 2013년 10월 21일(월) ~ 2013년 11월 5일(화)
2. 예선 심사 : 2013년 11월 12일(화) - 장소 및 시간 개별 연락
3. 본선 진출자 발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개별 통보
4. 본선 대회 : 2013년 11월 14일(목) 미래관 DLC 오후 2시 ~ 오후 5시

● 접수 방법

1. 지정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작성 (소속 학과, 학번,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세요)
2. PPT 인쇄물 4부(페이지 당 2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간 인쇄물로 출력)를 사고와 표현 연구실로 제출
3. 프레젠테이션 원본 문서 파일을 사고와 표현 이메일(writing@hansung.ac.kr)로 제출

● 심사 기준

- 발표 능력 평가 - 1. 논리적 설득력 및 전달력 2. 내용의 창의성 3. 슬라이드 구성 능력 4. 발표 전략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1명 (단과대학 구분 없음) - 상금 50만원
- 우수상 4명 (단과대학별 1명) - 상금 각 20만원
- 佳作 5명 (단과대학별 1~2명) - 상금 각 10만원

*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02-760-4354),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복지사업 불법논란, 본교 규정집을 알아보다

모순되어 보이는 본교 규정집, 상세화의 필요성 보여

본교 학생들이라면 학생회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보거나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아왔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복지사업은 중간고사 기간에 있었던 간식 및 아식배부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시험 준비를 위해 열람실에서 밤을 새본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식을 받아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가? 학칙(2013년 기준) 제3장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조항 중 제15조 ③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종료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복위의 아식배부사업이 학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복위는 학칙 제15조 ① 모든 행사는 행사집회신청원을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거하여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았다. 즉, 두 조항 간에 모순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몇 주 전 페이스북에 게시돼 뜨거운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최민이(기획전략팀) 팀원은 "학칙이 잘못 된 것은 없다. 제15조 ①에서 보듯이 사업의 구분은 학생지원처의 권한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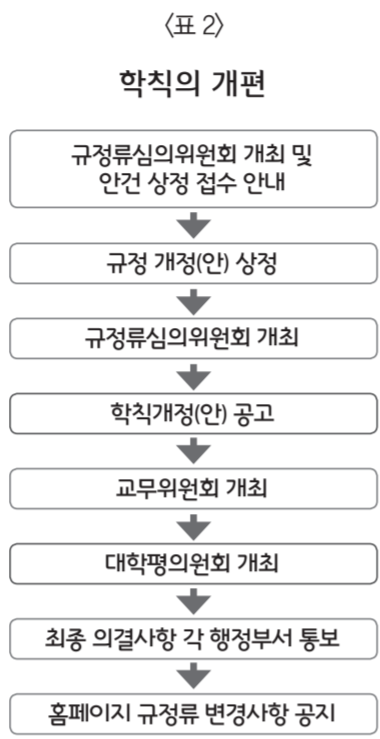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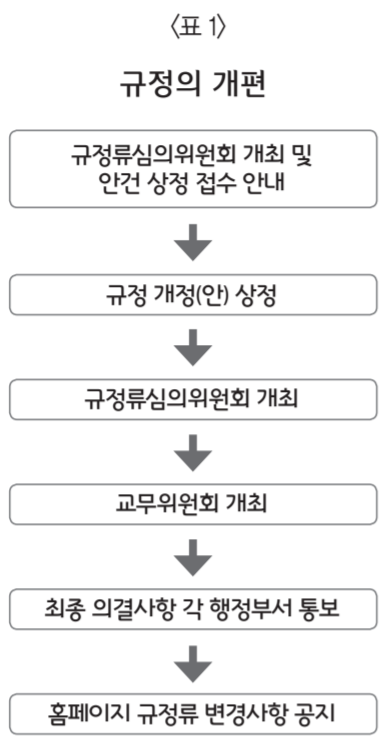
모든 학생회의 사업들은 학생지원

처를 거치게 된다. 학생지원처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에 통과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제재당하는 사업들은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외부회사의 광고나 학생회의 사업 중 외부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학칙들의 개편과정은 어떻게 될까? 학칙 및 규정의 개편은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규정집은 2년 단위로

만들어진다. 규정집*의 개편 방법은 <표1>, <표2>와 같다. 규정의 개편은 교수, 직원, 기획처장이 참여 대상이며, 학칙의 개편은 규정개편의 참여자에 학생, 동문 및 외부인사가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최종 개정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된다.

<표2>를 보면 <표1>과는 다르게 '학칙개정(안) 공고'와 '대학평의회의 개최'가 추가된다. 학칙개정(안) 공고는 교무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공지하여



일반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대학평의회의'는 학생회 임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학생회 복지사업 불법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애매한 학칙의 명시 때문이다.

이에 최민이 팀원은 "학칙이나 규정이 포괄적인 면이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기관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한 학생회는 이와 같은 일에 명들 뿐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논란에 '묵묵부답'이란 카드보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란을 명명백백 설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학생회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규정집 : 학칙과 규정으로 구성된 책, 학칙은 규정의 상위법임.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간추린소식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직과 특강 열려

지난 10월 28일 미래관 DLC에서 교직과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2011년에도 본교에서 특강을 했던 안병환(중원대) 총장이 특강을 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다문화 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강의 목적은 교직과정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형성하여 세계적 시각과 보편적 시각에서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병환 총장은 특강에서 다문화가 무엇인지,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한 학급의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될 것이다. 문화가 다른 이들이기에 교육자의 수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우수강의 수필공모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우수강의 수필공모전'을 시행한다. 이 공모전은 우수강의 사례 발굴을 통해 강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행된다. 작성방법은 '감동 강의'에 대해 수필형식으로 쓰면 된다. 단, 수필이라는 양식을 감안하여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색깔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주제로 한 수필이어야 한다. 응모 대상은 2013년도 1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한 본교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생 제외)이다. 심사결과발표는 2013년 12월 첫째 주 이후이며 시상은 2013년 12월 둘째 주 예정이다. 최우수상, 우수상,佳作를 각각 시상하며 각 상에 걸맞은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사항은 교육개발연구원(760-5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성대학교와 한국행정학회 주최 공동학술세미나 진행해

오는 15일 3시부터 2시간동안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비판행정연구회에서 공동학술세미나가 본교 학습관 206호에서 진행된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비판행정연구회가 주최하고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지방의 재발견'이다.

세미나는 권해수(한성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종수(한성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세미나가 진행된다. 한인섭(조선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총 3명의 교수가 발표한다. 발표 후 전주상(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를 포함해 총 3명이 토론을 한다.

문의사항은 김찬성 연구원(010-7290-5777)에게 문의하면 된다.

본교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 개최해

오는 11월 산학협력단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진행한다. 이 대회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2단계에 걸쳐 심사한다. 11월 15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후, 11월 20일 미래관 DLC에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가진다.

참가부문은 작년과 달리 혁신 아이디어와 창업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시상도 개별 심사한다. 이 대회는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 산업진흥원의 캠퍼스 CEO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순선(산학협력단) 과장은 "특정 학생은 창업진흥원 전문학교와 전문가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창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며 "단순한 아이디어, 취업목적, 퇴직이후의 대비하는 삶 등 지원할 수 있는 동기가 많지 않은 참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관심있는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참가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동정란

최현근(행정학과) 교수 최 교수는 SSCI학술지 미국행정학회보 2013년 9/10월호에 「The Adoption and Abandonment of Council-Manager Government」 논문을 게재했다.

이상혁(언어교육원) 교수 이 교수는 지난 10월 23일에 문화역서울 284 다목적홀 2에서 '과거·한글, 한국어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미래관 모니터 교체해



▲ 시설지원팀은 미래관 106호, 107호, 108호, 109호(자유 실습실)의 모니터를 10월 넷째 주 동안 새 것으로 교체했다. 2011년에 설치했던 모니터의 30%가 노후해 총 240여대를 교체했다. 본교 컴퓨터가 탐구관에 있음에도 미래관을 우선적으로 바꾼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김두영(시설지원팀) 과장은 "미래관 본체와 키보드는 12월에 교체될 것"이며 "탐구관의 컴퓨터는 내년 3월에 바꿀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pshy13@hansung.ac.kr

셔틀버스 운행시간 알고 이용하시나요?

번호	학기중	방중
학교→상선교	오전:08:00~10:30(3대 수시운행) 점심:12:00~13:00(1대 수시운행) 저녁:17:00~19:00(2대 수시운행)	오전:09:30~10:30(2대 수시운행) 점심:12:00~13:00(1대 수시운행) 저녁:16:30~17:30(2대 수시운행)
학교→대학로	점심:13:00(학교출발)→13:10(대학로출발)(1대 1회 운영) 오후:15:00(학교출발)→15:10(대학로출발)(1대 1회 운영) 저녁:18:00(학교출발)→18:10(대학로출발)(1대 1회 운영)	(대학로→학교방중) 12:00(대학로출발 1대 1회 운영)
비고	대학로출발은 혜화역 4번출구 앞의 에듀센터정문에서 출발합니다. *상기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학과 및 기타 학교 행사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일 운행시간은 정문 수위실에 문의 바랍니다.	

▲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당신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 걸어서 올라갈지, 마을버스 아니면 셔틀버스를 탈지 말이다. 마을버스 줄은 길고 걸어가기는 촉박하다. 그러나 아침에 자주 보이던 셔틀버스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다. 셔틀버스를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셔틀버스의 정확한 배차 간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또한 우리학교는 25인승과 32인승 셔틀버스를 보유

하고 있다. 구자운(총무인사팀) 과장은 "셔틀버스는 인원과 도로사정에 따라 유동적이게 운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전 시간 때에는 주로 25인승을 배치한다. 34인승이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할 수 있지만 학교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25인승이 34인승보다 더 빨리 학교로 진입할 수 있어 차량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셔틀버스를 학교에서 한성대입구역까지, 학교에서부터 대학

로 평생교육원까지 운행한다. 원래 두 구간의 운행시간은 같았지만 평생교육원측의 요청으로 이번 학기부터 변경되었다. 올 초에는 보문역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구간을 임시 운영했지만 탑승인원이 미비한 관계로 운영을 중지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자세히 알아보고 알차게 이용해보자.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Creative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2013년 제7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 취지 ◆

1.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2. 지정 주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문제 해결 능력
3.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과 발표 능력 향상

지정 주제 (택 1)

1. 최근 대두 되는 힐링(치유, Healing)이라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 및 개인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기
 2. '꽃보다 할배'라는 TV 프로그램과 관련한 글을 읽고, 우리 사회의 단면을 분석한 후,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 문제와 연계해서 발표하기
- * 지정 주제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반드시 숙지할 것

● 대회 일정

1. 예선 접수 : 2013년 10월 21일(월) ~ 2013년 11월 5일(화)
2. 예선 심사 : 2013년 11월 12일(화) - 장소 및 시간 개별 연락
3. 본선 진출자 발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개별 통보
4. 본선 대회 : 2013년 11월 14일(목) 미래관 DLC 오후 2시 ~ 오후 5시

● 접수 방법

1. 지정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작성 (소속 학과, 학번,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세요)
2. PPT 인쇄물 4부(페이지 당 2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간 인쇄물로 출력)를 사고와 표현 연구실로 제출
3. 프레젠테이션 원본 문서 파일을 사고와 표현 이메일(writing@hansung.ac.kr)로 제출

● 심사 기준

- 발표 능력 평가 -
1. 논리적 설득력 및 전달력 2. 내용의 창의성 3. 슬라이드 구성 능력 4. 발표 전략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1명 (단과대학 구분 없음) - 상금 50만원
우수상 4명 (단과대학별 1명) - 상금 각 20만원
佳作 5명 (단과대학별 1~2명) - 상금 각 10만원

*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02-760-4354),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음식점을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제'

서울시는 관광지역 중심으로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

점심무렵 대학생들은 한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까지 붐 떠버린 공간시간이 생기기 마련이다. 다음 수업시간까지 어떻게든 끼니를 해결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디서? 점심은 먹으러 집까지 다시 갈 수는 없는 노릇.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근처 음식점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당신은 무슨 기준으로 음식점을 고르는가? 맛? 가격? 혹은 입소문? 곧 음식점을 고르는 새로운 기준이 생길 전망이다. 바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기존의 '모범음식점' 제도와는 다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체 일반 음식점 중 5%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모범음식점들은 상수도로 감면 등의 세제지원, 조리기구 등의 물품지원, 용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모범음식점은 2009년 732건, 2010년 665건, 2011년



〈일러스트 이미지〉

479건, 2012년 333건, 올해 3월까지 63건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5년간 2272곳의 모범음식점이 말 그대로 이름만 '모범'음식점이었던 것이다.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의 대안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떠오르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이하 위생등급제)란 주방시설의 청결, 음식점 내 식자재, 시설 운영 상태 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위생

등급제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관광지 2-3곳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체 주요 관광지로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위생등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상태이다.

한편 서울시는 위생등급제를 이미 2009년부터 시작해 3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관광특구 지역(종로구, 중구, 용산구)과 공

공기관 청사주변, 공원 주변, 남산공원 및 한강공원의 인근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시행중이다. 위생등급제를 처음 도입한 2009년에는 289개의 업소가 위생등급평가를 받았으나 2012년에는 서울시 일반음식점 114,013개소 중 4,116개의 업소가 위생등급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주방시설 및 식품의 위생적 관리 등 4개영역으로 위생등급을 평가하여 총점 100점 중 70-79점은 A등급, 80-89점은 AA등급, 90점 이상을 받은 업소에는 AAA등급을 부여한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미라 주무관은 "작년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AAA등급을 부여 받은 업소는 1,101곳이다. 등급 외 업소는 차후 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제도전하도록 권장한다"며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면 영업자들이 업소의 위생등급을 높이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뉴욕시에서는 2010년 시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이후 시행 9개월 간 살모넬라균 식중독 환자수가 14%가량이나 줄어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음식점 매출액이 9.3%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생등급제가 국민들이 음식점을 고르는데 있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지구촌 이슈

중국 천안문광장에서 차량테러 사건 발생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광장 앞에서 SUV차량 한 대가 교각 보호대를 들이받아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당시 사고를 낸 SUV차량의 탑승자 3명 중 2명은 위쑤푸 우마이얼니아즈(43)와 위쑤푸 아이허푸티(25)로 신장자치구의 위구르족으로 확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30일, 중국 경찰 당국은 "28일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0시간여 만에 공범 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사건 차량에서는 쇠못등이와 휘발유통, '성정'이라는 문구가 쓰인 깃발이 발견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조직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테러 사건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의 종교, 언어 탄압 등에 반발하는 저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분리 독립운동으로 197명이 숨졌으며, 올해도 수차례 공안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 최소 100여명이 사망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사건으로 소수민족에 의한 또 다른 분리 독립 요구 테러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3명과 관광객 2명이 사망했으며,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좀비마약' 미국 전역으로 확산

최근 '크로코딜(Krokodil)'이라는 마약이 미국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크로코딜은 중독성이 매우 높고 중독되면 참기 힘든 통증과 함께 피부가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서서히 괴사한다.

일리노이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한 여성이 다리가 썩어들어 가는 증상을 보이자 담당의사는 이 마약을 '좀비마약'이라 표현했다. 이후 크로코딜이라는 본명보다는 '좀비마약'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CNN은 지난 달 11일(현지시간) "이 마약에 중독될 경우 살이 괴사하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뼈까지 상하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좀비마약은 2000년 러시아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빠르게 확산됐다. 지금은 러시아에서만 1백만 명이 이상이 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좀비마약이 미국에도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과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유타주와 애리조나주에서 환자가 보고됐으며, 10월에는 일리노이주에서 5명이 같은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좀비마약이 빠르게 번지는 데에는 가격의 영향이 크다. 가격이 일반 마약의 1/3 수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효과는 일반 마약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크로코딜, 일명 좀비마약은 지금까지 러시아와 미국에서만 보고됐지만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네보 화장품, 백반증 피해자 계속해서 속출해

지난 달 21일 더 재팬 타임즈(The Japan Times)는 유명 화장품업체 '가네보'의 미백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백반증에 걸린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21일까지 집계된 가네보 화장품 피해자는 15,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해 피부에 여러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들이 나타나는 후천적 탈색소성 질환을 말한다.

가네보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백반증에 대해 문의하는 소비자들의 조직검사를 진행 중이다. 연령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 중에 있다"고 답했다.

가네보 사는 "증상이 뚜렷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치료비 살피 지원, 위자료지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장품을 사용하고 3년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에도 백반증을 유발하는 로도데놀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반쯤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자사 제품의 백반증 징후를 파악하고도 장기간 대응을 미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돌아온 방사능 공포, 일본 여행객은 오히려 증가

약 4개월 전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 1원전 내부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후쿠시마 제 1원전은 2011년에 불어닥친 쓰나미로 인해 대형 방사능 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일본 정부는 하루 약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인근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이어 밝혔다.

이에 인접국가인만큼 우리나라도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다. 도쿄전력의 공식적인 인정 이후 국내산 갈치와 고등어의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45%나 줄어드는 등 국내 수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해 전국의 어업인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시행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연이어 보도하고 있으나 국내 수산물 소비는 예전처럼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방사능 측정기 판매업체의 매출은 10배 이상 뛰는 등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태는 우리나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계속되는 방사능 공포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 1일 한국관광공사 발표된 '9월 관광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본으로 간 관광객은 156만 4,200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36.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난 7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6%나 증가한 24만 4,000명이 일본여행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여행객들의 발길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방사능 우려가 큰 일본의 중부지역 대신 남부지역으로 물리고 있다. 두 달 후 일본여행을 계획 중인 차여리(21, 대학생)씨는 "최근 방사능 공포 때문에 일본여행을 가는 것이 많이 고민되었다. 하지만 방사능 위험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잠시 다녀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경보제도 4단계에는(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지역으로 구분)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후쿠시마현은 1단계인 여행유의의 지역이며 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이내 지역 및



▲ 일본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다.

후쿠시마현의 일부지역은 3단계인 여행제한 지역이다. 여행제한 지역은 가급적 여행을 삼

가하고 긴급유무가 아닌 한 귀국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스때 그 사건

봉고신화

흔히 요즘도 '봉고차'라고 불리는 승합차는 원래 기아자동차가 만든 승합차 이름이었다. 승용차보다는 크고 버스보다는 작은 12인승 차가 '봉고'라는 브랜드로 처음 선을 보이자 몇 가족이 함께 놀러갈 때 한 차에 탈 수 있는 이 봉고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봉고는 지금 마을버스 크기와 비슷했는데, 자그마하면서 모두 다 앉아서 가는 이 이동차량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용으로도 유용했다. 그런 승합차가 국내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당시 기아산업은 1981년 누적적자가 5백억에 달할 뻔할 것이라는 소문마저 돌 정도였다. 그러나 봉고차 출시로 1년 만에 1982년 39억 원의 흑자로 돌아서 위기의 기아산업을 살렸다. 그래서 '봉고신화'라고 명명되었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시장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만들어 내놓으면 죽어가는 회사도

살린다는 예이다. 기아산업은 1944년 '삼천리 자전거'에서 출발했다. 설립자 김철호는 두발로 가는 자전거를 만들다 세발 삼륜차 소위 딸말이를 만들어 한국에서 기술의 기아라는 기업정신을 세웠다. 국산승용차 '브리사도' 만들어 한국의 자동차문화를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1958년 공채 1기로 들어온 기계과 출신의 김선홍이 기계를 만지며 일하다 1987년 최고경영자가 되는 등 자본과 경영을 분리시켰다.

또 기아산업은 '우리사주'라 하여 기아산업 주식을 사원이 액면가 5백 원에 살 수 있도록 하였다. 기아가 위기였을 때 액면가 5백 원이던 기아산업의 주가는 2백5십 원이었다. 사원들마저 주식이 휴지가 될지 몰라 팔 것을 고민할 정도로 봉고차가 나올 당시 기아는 위기였다.

1981년 정부는 자동차공업합리화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저기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

작했기 때문이다. 기아는 승용차 부문에서 탈락하고 중소형화물차 및 버스전용생산업체로 지정된다. 당시 승용차 생산을 하던 기업이 승용차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자 봉고를 만들어 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원래 기아는 마즈다와 포드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지만 조창기 기술을 마즈다로부터 배워와 발전시켰다. 브리사도 그랬고 이 봉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그냥 들어올 수가 없고 새 제품을 내려면 몇 년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아는 이 봉고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한다.

문제는 이 봉고라는 이름이 마즈다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한국에서 봉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봉고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발전된 승합차를 선보였으나 다들 봉고라고 불렀다. 1986년 '베스타'가 봉고 후속으로 나왔다.

그러나 1987년에는 '프라이드'를 내놓는다. 6년 만에 승용차시장에 복귀한 것이다. 마즈다, 포드와 힘을 합쳐 만든 모델인 이 프라이드를 타면서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좋아했다.

또 위기가 타쳐왔다. 김선홍 사장이 떠나고 1998년 국제임찰에서 포드가 안 되고 결국 한국의 현대가 기아자동차를 품게 되었다.

먼저 시작했고 잘 만든다고 기업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치고 들어오는 경쟁상대와 정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1944년에 설립된 기아가 공중분해 되지 않고 아직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던 시절, 남의 나라 자동차를 들여와 뜯어서 설계를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의 궁지와 기술이 DNA로 흐르고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든다.

〈칼럼니스트 우혜진〉

낙산만평

안의영 (애니 4)



혼전동거와 결혼



교단에서

최홍권
(행정학과 외래교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3세~24세 청소년의 58.4%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한다. 요즘은 젊은 세대의 성문화의 개방성과 결혼에 대한 사고의 변화로 인해 대학생들의 동거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는 혼전동거가 강요되었고 전통적인 혼인은 집안과 집안끼리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 물레 미혼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혼전동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우리 사회의 혼전동거는 주로 부모의 반대 등의 어떤 이유로 인해 결혼을 미룬 '미혼동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 대학가 중심의 원동기에서는 객지 생활의 외로움·호기심·성적욕구 충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동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거는 연인끼리 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조건에 맞는 동거파트너를 공개적으로 구하는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사랑이 없어도 동거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사고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텔레비전에도 동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혼전동거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이혼보다 동거가 낫다', '연애와 결혼생활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동거해보는 것이 좋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동거문화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동거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 문제이다. 흔히 동거를 하면서 이성간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배우자 자체를 고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적절한 피임 없는 동거생활 중 아기가 생긴다면 결혼의사가 없던 두 남녀관계는 복잡해지고 낙태를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갈등이 지속되며 그 갈등 속에서 두 남녀 간 깊은 골이 생기게 된다.

또한 무엇보다 아직까지 혼전동거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따갑고 아무리 대학생들이 동거를 선호한다고 하나 주위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숨기는 분위기이다.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오점을 남겼다는 불명예를 안기도 한다. 사실상 뗏뗏이 그 사실을 밝히는 이들은 거의 없고 동거를 하는 이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부끄럽지 않고 뗏뗏하다면 굳이 숨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생활에 무언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고 실제로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이 많지만 배우자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 경우 실은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동거관계는 미래의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무책임한 동거는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사 실 ·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큰 시험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은 긴장을 하게 마련이다. 잘하려 하다 보니 몸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고 종종 실수를 한다. 잘해야 한다는 의욕과잉이 원인이다. 이런 긴장은 운동선수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의욕과잉으로 긴장을 하고 낭패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가 디자인과 신입생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다. 경험이 많아지면 당연히 여유가 생기지만 그 기간을 단축시키면 얼마나 이득인가? 그러기 위해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디자인은 창작이 아니고 발견"이라는 것이다.

과제를 부여받으면 의욕이 앞서서 학생들은 빈 종이를 앞에 놓고 멋진 것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고민을 시작한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성과 없이 종이는 백지인 상태다. 몇 일이 지나도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머리가 잔뜩 긴장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 부담감 없이 그냥 손가는 대로 쉽게 스케치를 하라고 주문한다. 필자의 주문에 한 두 명씩 스케치를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에 스케치가 가득 차게 된다. 그 때 잠시 쉬었다가 좀 전에 마구잡이로 그린 스케치들을 다시 들여다 보게 한다. 그 스케치들 중에서 쓸 만한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쓸 만한 것이 없다면 앞선 과정을 다시 되풀이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대개 좋은 씨앗 아이디어가 발견된다.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창작이라는 태도를 가질 때보다 아이디어의 질이나 생산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 때부터 필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다. 좋은 씨앗 아이디어의 감별을 도와주는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멋진 아이디어를 내놓고도 그것의 가능성을 상상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잠재력 큰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해주어도 반신반의 하곤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경험의 양이 적어서이다. 경험이 많아져 상상력이 정확해진다. 둘째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도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자기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마 우리 입시환경이 만들어낸 많은 폐해 중의 하나일 것이다.

피카소, 에디슨, 스티브잡스, 빌 게이츠 같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점이다. 디자인을 하건, 공학, 사회과학, 인문학 가운데 어떤 전공을 하건 마찬가지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결단 그런 것이 아닌 마음 속 저 밑에서부터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열정의 유통기한

처음시작은 누구나 새 빨간색이었을 것이다. 공부, 연애, 일, 휴식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말이다. 붉게 넘실거리는 열정에 없던 힘도 솟아나고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솟아난다. 다이어리에는 계획이 넘치고 하루하루 바쁘지만 힘들지 않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는 느낀다. 눈꺼풀에서 새빨간 열정이 견어지고 온통 회색이 되는 순간을 말이다. 그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외부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열정이 식는 순간 눈빛은 충기를 잃고 만사가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뇌마져 지쳤는지 생각의 속도마저 더디다.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며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많은 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지난 중간고사 때는 어땠는가? 개강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지 않았는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연인과는 어땠는가? 만나는 약속 자체가 부담스러워 이를 피하지는 않았는가? 하나의 목표만 지원금도 받고 대회 실적도 남기고 창업에 성공하기.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만 하다.

막연한 불안감이 들지는 않았는가? 그만 두면 그만일까?

우리는 불길게 내뿜으며 활활 타던 장작이 다 타고 재와 먼지만 남은 것처럼 식어간다. 열정의 유통기한이 다한 것이다.

열정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는 이 유통기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는 이 유통기한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열정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다. 후회도 없도록 말이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유통기한을 만들 수 있도록 말이다. 식은 열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새로운 열정에 불을 피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이유를 찾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나의 열정의 유통기한이 짧은지 찾아 식어가는 열정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열정에 불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열정이 식어가는 과정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실망감이 더 커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된다. 열정은 사계 마련이다. 그 열정을 다시 불태울지 새로운 열정을 찾는지 우리의 몫이 아닐까?

BJ, 별풍선을 좋아하는 사람?



기자수첩

손민호 수습기자
(정통 1)

개인방송국이라고 들어 보았는가? 온라인 상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TV라는 서비스가 있다. 이 아프리카TV는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송하는 사람(BJ)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 단순히 자신이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과 자신의 장기를 뽐내는 것들이 예시이다. 여가 시간에 사람들은 재미있는 방송을 찾아 웃고 또 같은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한다. 하나의 커뮤니티가 생겨난 것이다.

자신이 방송을 재미있게 보아서 BJ에게 별풍선(아프리카TV의 현금)이란 것을 선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BJ들이 별풍선을 받기위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방송한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을 벌기위해

방송에 선정성이 포함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것이 문제가 된다. 몇몇의 여자BJ들은 별풍선을 받기 위해 방송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 심지어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BJ가 "별풍선을 주신다면 XXX해줄게요"라는 말을 하여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유도했다. 아프리카TV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시청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일까? 또한 남자BJ들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진행을 멈추고 별풍선을 유도한다. 방송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은 반강제로 별풍선을 사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BJ에게 별풍선을 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방송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몇몇의 BJ들은 방송을 하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욕설을 쏟아낸다. 방송인인 BJ는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심지어 시청자들에게도 욕설을 퍼붓

는 BJ가 있다. 그러면 BJ는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부각해서 또다시 별풍선을 유도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도 아프리카TV 방송을 즐겨보는데 심심치 않게 별풍선을 유도하는 BJ들이 많이 보였다. 심지어 어떤 BJ는 "다른 방송의 BJ는 별풍선을 저렇게나 받는데 나는 이게 뭐냐"라고 하며 방송을 종료한 적도 있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보기 불편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언행들로 BJ들은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돈 벌려하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발언하는 시청자도 많다.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아래 별풍선을 못 받는다고 시청자들의 기대를 쉽게 종잇장 마냥 여기는 사람이 방송할 수 있는 BJ 자격을 계속 쥐어줘야 할까? 아무리 개인방송 국이라지만 BJ는 방송인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시청자들을 존중해 주는 방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고가자!



낙산에 올라

최준석 학생
(경영 2)

취업난이 지속되는 요즘 모바일과 SNS 시장의 발전, 대학교의 창업지원에 계기로 청년 지식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창업동아리 지원, 실전 창업아카데미 확대, 각종 창업대회 등 청년 창업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창업을 잘 모르고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서 출발해보자. 창업의 시작인 스타트업. 여기서 부터 창업이 시작된다. 스타트업이란 닷컴회사가 생기던 90년대 말 닷컴버블시대에 생긴 용어로서 미국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작으로 조명 받으면서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STARTUP의 정의 : 운영기간이 매우 짧은 회사. 이 신생 회사들은 시장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리서치를 하는 단계이다. 쉽게 말하자면 실제 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제품 및 서비스 시장탐색을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고, 현재가치보다는 미래가치로 평가 받을 잠재력과 성장성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

이 기간이 지난다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수익을 창출하고 타 회사와 경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사업 목표수정이나, 사업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중 매우 짧은 기간을 차지하는 만큼, 너무 오래 스타트업 기간을 잡는다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세밀한 준비 후 적절한 스타트업을 해야 한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스타트업은 끝나지만, 짧은 기간의 스타트업이 중요한 이유는 초기 시작 기업에게 아이디어, 팀, 자본금 등이 불안정하며, 스타트업의 목표인 급격한 회사 성장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공의 기반을 다지는 이 시기를 실패해 무너지는 회사 다수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에 정해진 방향은 없으나, 계산된 운영을 하기에는 변수가 많다. 이런 요소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 효율성 높은 팀, 많은 자금이 필수이다. 창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디어, 팀,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총당 자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게다가 창업의 적기인 지금! 정부 차원의 창업지원금과 창업 경진대회도 곳곳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기적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효율적인 창업을 생각해 창업 지원금도 받고 대회 실적도 남기고 창업에 성공하기.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만 하다.

독립채산제 특수대학원 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지

2012학년도와 2011학년도 2개 년도의 독립채산제 특수대학원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2학년도 (2013년도에 평가)		2011학년도 (2013년도에 평가)	
1위	경영대학원	1위	부동산대학원
2위	부동산대학원	2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3위	국방과학대학원	공동 3위	경영대학원
4위	예술대학원-패션디자인기획학과	공동 3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융합기술학과
5위	행정대학원-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5위	행정대학원-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6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융합기술학과	6위	행정대학원-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7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7위	예술대학원-뷰티예술학과
8위	교육대학원	8위	교육대학원
9위	예술대학원-뷰티예술학과	10위	예술대학원-패션디자인기획학과
10위	행정대학원-마케팅학과	10위	행정대학원-중독재활학과

대학원 2014학년도 전기(정시)입시일정 안내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4학년도 전기정시 입시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원서접수 및 입시일정안내

- 모집요강 공고 : 대학원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입학안내-입학공지
- 원서접수 : 2013.11.18(월)~11.25(월)
인터넷접수100%(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원서접수는 24시간 접수가능하되, 원서접수시작일은 10:00시 부터 원서접수마감일은 17:00시 까지임
- 면접전형일시 : 2013.11.30(토) 10:00시 ~
- 합격자발표 : 2013.12.13(금) 14:00시, 대학원홈페이지
- 등록 : 2013.12.20(금) ~ 2014. 1.2(목) / 예비합격 등록기간 1.3(금)~1.6(월)
* 입시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도 있습니다.

2 대학원 진학시장학금

- 일반대학원(석사) : 수업료의 50%감면 (1~4학기 / 2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 3.0이 상인자)
- 특수대학원 : 입학금 면제 (본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이외에 각 대학원별로 면학장학, 성적장학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참조

· 입시 총괄 : 대학원교학팀 (02-760-4271, 학승관2층) ·

꿈의 대화

통역에는 정답이 없다

최승락 동시통역사를 만나다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본교학생)가 함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최승락 동시통역사는 본교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한 선배로 지난 1학기 '대학과 지성'에서 강의를 한 바 있다. 이 강의에서 많은 학생들이 동감을 얻었고, 이에 최승락 동시통역사를 모시게 되었다. 최승락 동시통역사는 현재 스탠다드차타드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꿈의 대화는 두 명의 멘티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윤지연(이하 윤) : 선배님의 대학생활은 어땠나요? 처음부터 통역사의 길을 꿈꾸셨나요?

최승락(이하 최) : 대학생활은 신문사밖에 기억에 안남네요.(웃음) 전 처음

음에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성대 신문사에서 기자 활동을 했었죠.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나 봐요. 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번역학과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죠. 하지만 번역과는 이화여대 밖에 없었고, 결국 통번역을 선택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학년때 신문사 기사를 하느라 바빴고, 고학년때 공부하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건 '대학시절에 좀 더 놀길'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은 힘들 겁니다. 언제 찾을지 모르거든요. 저만해도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즐겨

워하는 것을 해라! 제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김우석(이하 김) : 어느 대학원이 좋을지, 시험에 붙을 수 있을지 등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대학원을 준비하셨나요?

최 :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한 이후는 누구나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선택의 폭도 넓고, 고민도 많이 되지요. 대학원입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엄청 못했거든요. 저는 졸업하고 신문사 조교를 1년 정도하면서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지만, 다들 비슷비슷해요. 입학한 다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선 합격하고 고민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곳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학원 입시 시험을 보면 학원에서 배운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원은 정답을 가르쳐주거든요. 통번역 대학원의 시험은 말을 잘 알아듣고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하

“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

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한번 부딪혀보세요! 떨어지면 다시 응시하면 됩니다. 아직 젊잖아요! 혹시 알아요? 합격할지? 우선 도전해보세요 걱정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웃음) 대학원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 : 윤 : 어느 대학원을 갈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원 별로 차이가 크가요? 또 대학원 입시준비를 할 때 학원을 다니면 좋을까요?

최 : 전 입시준비를 하면서 학원을 1년 정도 다녀요. 학원은 강사님들도 좋고 살아가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방법은 배울만한 것이 많아요. 하지만 학원을 오래 다니면 불안감만 생깁니다. 학원은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기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답을 요구하거든요. 하지만, 단어마다 완벽하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통역이란 어려운 한국말을 영어로 내가 아는 만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통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통번역관은 주로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계약직으로 일을 합니다. 사기업은 대략 3개월을 계약하고, 잘하는 사람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합니다. 그렇다보니 학벌을 보지 않아요. 연봉을 봐도 비슷비슷해요.

학원보다는 대학원, 대학원보다는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 : 지금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최 : 은행에서 통번역관으로 근무하

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대출과 카드결제에 관한 일을 하고 있죠. 최근엔 외국에서 연수 온 외국인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 자료를 번역하고 수업을 하며 통역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한글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안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윤 : 통번역관을 하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나요? 통번역관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최 :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통번역은 즐기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즐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서 학원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통번역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배우고 공부하다보면 하기 싫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번역의 가장 큰 매력으로 '어려운 단어들도 내 방식으로 살려내는 것'과 '자신이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통번역은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좋은 통번역이 되지 않아요. 물론 '문장이 맛있다?', '문장의 구조는 맞는가?', '원문의 느낌이 잘 살았나?'의 고민을 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겠지요?

항상 즐기는 마음으로 통번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멘토인 최승락 동시통역사의 모습이다

인터뷰는 식사를 하며 편안하게 마쳤다. 인터뷰가 끝난 직후 두 멘티는 매우 흡족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최승락 동시통역사도 자기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후배들을 만나 흐뭇해했다.

최승락 동시통역사는 "대학원에서 번역 강의를 했었다. 후에 내가 진행하는 강의를 두 후배가 듣고 있는 인연이 있기를, 또한 후배들이 나처럼 학생들이에게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성 기자 1236067@hansung.ac.kr



▲ 멘티들의 모습이다. 좌-윤지연 학생, 우-김우석 학생

교직원을 만나다

우편을 발송할 때 학생들의 편의가 가장 중요해

우체국 박종희 팀원을 만나다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편발송, 택배 등의 업무로 우체국을 자주 이용한다. 이러한 업무를 보기위해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중문 옆에 위치한 우체국을 한번쯤 이용해 봤을 것이다. 우체국에서 일하면 우체국 소속의 직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우체국은 학교에서 학교법인으로 개설한 우편취급소이다. 이번에 만나본 교직원인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박종희(총무인사팀) 팀원이다. 학교 우체국에서는 금융업무를 제외한 우체국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우편을 발송하고 학교로 발송된 우체국택배를 수령 및 관리하는 일이다. 그녀는 "우체국택배의 1차 수령지는 이곳이다. 그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급히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등기로 받는다 가정하자. 배달부는 배달부는 배달했다고 답하는데 수취인인 교수님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연구동으로 등기갈

은 경우에는 과사무실에 연락해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우편은 일 주일에 한 번씩 근로학생들이 교수님 우편함에 직접 넣는다. 중요한 등기일 때는 미리 연락을 주면 도착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니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랜 시간동안 근무한 그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작년엔 자동차 우체국으로 돌진한 사건을 꼽았다. 그녀는 "그 당시에 업무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돌진해와 놀랐다. 운전자가 후진에 기여를 놓은 줄 모르고 엑셀을 밟아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운전자가 학생이라더라. 우체국 안에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박종희 팀원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우리학교에 재직 중이다. 학교 우체국에서 일하게 된 계기를 묻자 박종희 팀원은 "교내 우체국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을 때 업무에 대해 아는 사람을 선발했다.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우체국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직원인 된 후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체국은 중문 옆에 위치한 학생 제1별관에 있지만 5-6년 전에는 창 의관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체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으며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이다. 또한 다른 우체국이 문을 여는 날에는 똑 같이 문을 열기 때문에 개교기념일에도 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우체국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우체국으로 물건을 받으려면 우체국 주소를 쓰냐고 묻는 것이라고 박종희 팀원은 말했다. "그 때는 학교 주소를 쓰고 자신의 학과와 학년, 전화번호를 정확히 명시해야 쉽게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우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우표를 구입할 때는 원하는 종류를 정확히 말해야 한다. 액체나 유리같은 특수포장이 필요한 물품은 접수받을 수 없으니 그 점을 알고 우체국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다음에 우체국을 방문한다면 오랜 시간을 학생들을 위해 일한 박종희 팀원에게 인사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총무인사팀 박종희 팀원의 모습이다.

사진이야기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브라질 국경에 걸쳐 있는 이과수 국립공원의 이과수폭포입니다.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이과수폭포는 세계3대 폭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서 수분이 많아 사진이 잘 안나왔네요.

이동환(기계 4)



밤하늘 별자리 원리를 차차

별자리의 탄생

밤하늘을 바라보며 인류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아 반짝반짝 빛났을 과거에 별은 선망의 대상이자 연구의 대상이었다. 옛날사람들에게 별은 생활의 중심이기도 했다. 별을 보고 시간을 확인하고 별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별에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를 입혔다. 별자리에는 동·서양의 신화와 상징이 물들어있다.

별들의 무리를 보고 옛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이나 괴물의 모습을 연상하거나, 혹은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내세워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는데,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별자리이다. 현재 별자리는 하늘 전체에 88개가 있다. 별자리는 우주의 일부분을 나타낼 때 지도의 기호나 대략적인 좌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밤하늘의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중심에 있는 북극성은 진북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별을 좌표로 삼아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극히 미묘하게 움직인다) 또 별은 어느 정도 움직였는가에 따라 시간의 경과도 알 수 있다. 달력과 컴퍼스 같은 도구가 없었던 고대인들에게 천문지식은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식이었을 것이다. 4대명왕의 발견하기 전, 즉 문자가 발명되기 전인 원시 시대부터 이러한 지식은 전승되었을 것이다. 전승이 거듭됨에 따라 사람들은 별의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하고 기억하기 위해 자신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덧입혔고 별은 승배의 대상이 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삶의 지혜와 인간의 신화가 합쳐져 오늘날의 별자리가 탄생했다.

점성학과 천문학

별에 관한 학문을 생각하면 흔히 '천문학(Astronomy)'을 떠올릴 것이다. 천문학은 지구 밖의 천체나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4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학문이다. 이러한 천문학 뒤에는 '점성학(Astrology)'이 있었다.



점성학은 연금술과 마찬가지로 의사과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점성학은 연금술처럼 사정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학문 중의 하나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천문학은 현대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천문학 이전에 점성학이 있었고 천문학자 이전에 점성학자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점성학은 단순한 의사과학이 아니라 원형과학**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천체를 탐구하던 학문은 고대인들처럼 달력의 작성과 예언을 행하는 점성술과 우주의 구조를 연구하는 천문학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2궁의 탄생

12궁은 정확한 태양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만든 개념이다. 천체관측을 하면서 한계를 느꼈던 그 당시 점성학자들은 태양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태양의 궤도가 그리는 원을 12등분했다. 그 12부분마다 민간에서 전승되어왔던 12성좌의 이름을 부여하기로 했던 것이다. 백양궁, 금우궁, 쌍자궁, 거해궁, 사자궁, 처녀궁, 천칭궁, 천갈궁, 인마궁, 마갈궁, 보병궁, 쌍어궁 이것이 바로 황도 12궁이다. 황도 12궁의 탄생은 1개월마다 태양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탄생한 12궁 사상이 그리스로 건너가 현대 별자리의 원형이 되는 고대의 별자리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바빌로니아에서 12궁이 탄생했을 무렵, 그리스에서는 철학과 과학이 새로운 형태의 학문으로 등장했다.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논리는 신과 함께였다. 신의 존재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것들 뿐이었다. 고대인들은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들에서 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천체의 관찰을 통해 탄생시킨 '달력'은 시간의 경과를 알기위한 것임과 동시에 신의 예언을 읽기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보다 정

춘분점에서의 경도	이름	라틴어	별자리
0°	백양궁(白羊宮)	Aries	양자리
30°	금우궁(金牛宮)	Taurus	황소자리
60°	쌍자궁(雙子宮)	Gemini	쌍둥이자리
90°	거해궁(巨蟹宮)	Cancer	게자리
120°	사자궁(獅子宮)	Leo	사자자리
150°	처녀궁(處女宮)	Virgo	처녀자리
180°	천칭궁(天秤宮)	Libra	천칭자리
210°	천갈궁(天蠍宮)	Scorpio	전갈자리
240°	인마궁(人馬宮)	Sagittarius	사수자리
270°	마갈궁(磨羯宮)	Capricornus	염소자리
300°	보병궁(寶瓶宮)	Aquarius	물병자리
330°	쌍어궁(雙魚宮)	Pisces	물고기자리
	사건궁(蛇遺宮)	Ophiuchus	뱀주인자리

확한 예언을 얻기 위해서 천체를 더욱 정확하게 관찰하고자 했던 것이다.

황도12궁과 점성학

우리가 즐겨 보는 별자리운세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리, 물병자리 등의 이름은 성좌와 같은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좌, 즉 별자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별자리운세는 황도12궁을 기초로 한다. 황도12궁은 천체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태양의 궤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태양이 그리는 원 궤도를 12등분 한 것이다. 각 부분에 12성좌의 이름을 붙였을 뿐 실제 12성좌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9월23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천칭자리 출생'이라고 부른다. 이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태양이 천칭자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간의 태양과 함께 하늘을 돌고 있는 것은 처녀자리이다. 한 성좌만큼 어긋나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도12궁에서

는 태양의 배후에 어떤 성좌가 있든 간에 천칭자리가 맞는 것이다.

별자리별 성격과 운세의 원리

서양점성술은 탄생점성술이다. 수성에서 시작해 명왕성에서 끝나는 여덟 개의 행성에 태양과 달을 더한 열 개의 별이, 태어난 순간에 12궁 가운데 어느 궁에 위치해 있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행성과 궁에는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서 12궁도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읽어낸다.

점성술의 특징은 누가 그려도 반드시 같은 12궁도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늘은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의 행성의 위치를 계산으로 판명하는 것이다. 물론 계산 방법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같은 12궁도를 그릴 수 있다. 12궁도는 각각의 행성이나 궁에 주어졌던 특등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런데 점성술사에 따라 그 읽는 방법이 다른 것도 재미 있는 부분이다. '사자자리 출생'이란, 탄생 시점에 태양이

사자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태양이 사자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자자리가 가진 성질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그리고 행성과 성좌의 관계, 행성거리의 위치 관계 등에 의해 사람의 운명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호성이란 각 궁에 대해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는 행성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궁이 하나의 수호성을 갖고 있다. 행성의 성질과 그 행성의 수호성이 갖는 12궁의 의미를 살펴보면 별자리별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미래의 운을 점칠 수도 있는 것이다.

뱀주인자리(땡꾼자리는) 13번째 별자리인가?

최근 12성좌에 '뱀주인자리'를 추가해 황도 13성좌로 바뀌었다고 이슈 된 바 있다. 사람들은 뱀주인자리가 추가 될 경우 기존의 별자리가 바뀌게 되었다며 혼란스러워 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점성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점성술에서 사용되는 황도 12궁은 태양을 기준으로 그려진 태양의 원 궤도를 12등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별의 위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태양이 그리는 원 궤도(360°)를 정확히 나눌 수 있는 수가 12이지 13이 아니기 때문에 뱀주인자리를 13번째 궁으로 인정 하지 않고, 12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뱀주인자리는 그저 별자리에 그칠 뿐 별자리 운세, 즉 황도12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과학: 학문, 학술, 이론, 지식, 연구 등에서 그 목적과 연구자가 과학이라 주장하거나 과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지식으로는 과학의 여건으로서 널리 인정받는 조건(과학적 방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원형과학: 아직 과학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으나, 후에 과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락방 책꽂이

내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프로이트의 의자' / 정도연 / 웅진지식하우스

사람들은 누구나 간혹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이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여야만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 자신을 남보다 모를 때도 있다. 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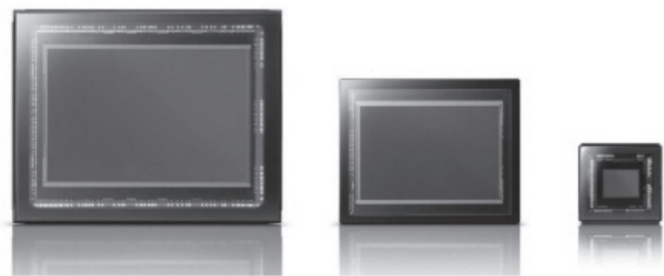
프로이트는 방어기제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방어기제는 자아가 불안과 수치심, 죄책감이 들 때 평상심을 유지하기위해 작동한다. 즉 문제적 상황에 대처하는 무의식의 작동인 것이다.

프로이트의 의자는 이러한 방어기제의 개념을 실생활에 녹여 풀어낸다. 굳이 방어기제 감사를 받지 않아도 책만 읽음으로서 나의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비춰볼 수 있게 한다. 프로이트의 의자에 앉아 무의식의 상처를 한 꺼풀 한 꺼풀 들춰본다. 상처를 들춰보지만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들춰보는 행위를 통해 감정의 정화와 상처의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비춰보기 힘든 나의 무의식상처를 비춰보고 싶다면, 프로이트의 의자에 앉아보자.

IT한 소식

카메라 업계, 변화의 중심은 부품산업

기술집약적 산업, 부품간 수직계열화에 주목



최근 카메라 업계의 지형도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감자 캐논, 니콘이 주축하는 사이 소니가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모양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몇 가지 시장 변화가 핵심으로 작용했다. 우선 디지털일인반사식(DSLR) 카메라 대신 미러리스 카메라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콤팩트 카메라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급속하게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DSLR 카메라의 경우 휴대성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부족한데다가 성능 차이도 크게 줄어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구입을 고려해볼만한 상황이다.

시장의 변화를 보면 미러리스 카메라가 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만 지난 2010년 7월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30% 돌파한 이후 2012년 7월 47%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이후 DSLR 카메라와 함께 전체 카메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캐논과 니콘은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왜 소니만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CMOS 이미지센서(CIS)가 필수적이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CIS를 자체 설계해 생산하면서 카메라까지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캐논, 소니, 올림푸스, 후지필름, 삼성전자, 파나소닉 등으로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CIS 자체의 경쟁력이다. 외부에서 빛을 받아들여 이미지를 만들어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업체가 바로 소니다. 니콘도 풀프레임 DSLR 카메라는 소니 CIS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다. 미러리스 카메라인 '니콘1' 시리즈의 경우 미국 마이트론 이미징사업부가 독립해 설립된 암티나이미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인지 최근 실적 부진에 빠진 니콘은 스마트폰과의 경쟁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니콘 기무라 미코토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냅샷을 촬영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커다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니콘의 공략 방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 CIS를 비롯해 카메라 주요 부품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각각의 구성 요소의

성능이 아직까지 선두권 업체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구석이 적지 않다. 캐논의 경우 'EOS 70D'를 통해 CIS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품에는 하나의 화소, 그 러니까 한 개의 픽셀에 두 개의 포토 다이오드가 내장됐다. 일반적인 CIS는 픽셀 하나당 하나의 포토다이오드가 장착됐다. 포토다이오드가 늘어난다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자동조점(AF) 처리가 가능하다.

소니가 세계 최초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CIS 사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를 비롯해 애플 아이폰 등도 스마트폰 카메라에 쓰이는 CIS도 소니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CIS가 카메라 사업의 전부 아니다. '이미지 프로세서'나 '렌즈'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카메라 업계는 부품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소니와 캐논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카메라도 기술 집약적인 제품이다. 스마트폰이 콤팩트 카메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카메라는 카메라가 제 공할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경험과 습관을 파악해 통찰력을 발견하고 제품을 개발할 때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시장선도적 가치 발견에 중점을 두는 '기본기에 누가 더 충실하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食道樂

'식도락'은 우리에게 생소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음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해 기획된 코너입니다.

카페인의 두 얼굴

떨어져 뒹구는 낙엽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잔의 여유.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커피의 향도 깊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카페인. 카페인이 건 강에 해롭다, 아니냐 말들이 많다.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카페인의 진실을 알아보자.

카페인은 커피원두에서 처음 분리, 확인되었기 때문에 카페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녹차나 홍차, 코코아, 콜라 등에도 들어있고, 피로회복제, 두통약이나 감기약에도 들어있다. 예너지음료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알고 보면 카페인 음료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정신을 맑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각성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항산화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근육운동을 촉진하여 운동시 지구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카페인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카페인의 부작용 때문이다. 커피를 마시면서 입이 안 오거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유는 모두 카페인 때문이다. 카페인의 지나친 각성효과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심장 자극효과가 있어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은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

구에게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커피의 카페인에 몸이 나쁘지만 녹차의 카페인에 몸이 좋다는 말은 사실이다. 이는 카페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 커피원두에는 주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에 차엽에는 카페인과 테오피린에 함께 들어 있다. 또한 녹차 중에는 커피에 들어 있지 않은 카테킨과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카페인과 결합되어 카페인이 불용성 성분으로 되거나 활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커피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도 차만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초콜릿칩쿠키, 초콜릿케이크, 초콜릿아이스크림...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 중 상당수에 초콜릿이 들어있다. 초콜릿의 재료인 카카오 콩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이용한 가공식품에는 당연히 카페인도 들어있다. 그런데 어린이의 카페인 대사속도는 어른에 비해 훨씬 느리다. 즉, 카페인의 부작용도 심하다는 뜻. 최근 프랑스에서는 카페인 함유량이 많아 청소년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예너지음료에 특별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성장기에는 카페인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 양은 커피원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른데, 로브스타 종의 원두는 아라비카 종의 두 배에 해당하는 카페인을 함유한다. 인스턴트 커피가 레귤러 커피보다 더 많

은 카페인을 함유 하고 있는 이유도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할 때 로브스타 종을 많이 사용하고 고온 고압에서 3-4시간 정도 추출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카페인의 분해속도가 다르므로 자신이 몇 잔 정도를 마셨을 때 가장 상쾌한 기분이 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의 하루 섭취량은 300-500m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커피는 하루에 3잔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녹차의 경우는 10잔까지도 무리가 없다.

카페인은 위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빈 속에 마시는 모닝커피는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것. 임신중이거나 수유 중에도 카페인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페인은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혈이 있거나 철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를 피해야 한다. 카페인은 철분의 흡수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카페인.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다방, 그 낯설어진 문화를 찾아서

거리마다 카페가 준비한 요즘, 다방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다방'은 어떤 곳이었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당신은 '다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혹시 달걀노른자가 띄워진 쌍화차를 마시는 백발 어르신 혹은 개화기의 신지식인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가?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속 '다방'은 어떠한가?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다방'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주로 구시대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데, 과연 다방은 과거 어떤 곳이었을까. 그리고 2013년 현재, 다방은 안녕하고 있을까.

'다방(茶房)'은 한자어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커피도 판매하지만 일반적으로 찻집을 일컫는다. 커피전문점인 '카페'와 명칭이 달라 서로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둘 다 차, 커피 등을 즐기는 공간을 의미한다. 다방과 카페와의 차이점이라면 카페는 외래어라는 것이다.

'다방'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했다. 고려, 조선시대의 다방은

외국 사신 접대와 같은 술, 과일 등에 관한 나랏일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이었다. 하지만 다과를 판매하는 지금의 '다방'과는 다른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차를 판매하던 '다방'은 언제 나타났을까?

구한말에 이르러 개화물결을 타고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소개되었다. 커피의 등장과 함께 차를 판매하는 다방이 등장했다. 1888년 개항지인 인천의 대불호텔과 슈투워트호텔이 문을 열면서 커피를 판매하였는데, 이때 우리나라 다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02년에는 '손탁'이라는 독일계 여성이 지금의 이화여고 자리에 서울 최초의 식당형식의 다방을 열었다. 이후 1923년에 일본인들이 총무로에 '후다미'와 '금강산'이라는 다방을 개점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이처럼 개화기 초기의 다방들은 주로 외국인들이 경영하는 형태이다.

그렇다면 한국인 사장에 의해 문을

열었던 최초의 다방은 어디였을까? 한국인이 경영한 최초의 다방은 1927년 종로에서 문을 연 '키키'였다. 하지만 다방이라는 공간은 서민들에게 낯설었던 탓에,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되었다. 다방이 새로운 근대공간으로 널리 소개되며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20~30년대 모더니즘이 확산되기 시작한 후의 일이다. 당시 커피는 한잔에 60~80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선도하던 모던보이와 모던걸은 다방을 찾아 모더니스트의 상징인 커피를 즐기곤 했다.

그 후 다방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 1940~50년대, 인스턴트커피가 미군부대를 통해 소개되며 다방은 명동, 종로 등의 변화가에서 문인들의 아지트로써 자리 잡게 된다. 이후 1960년대에는 서울 시내에 약 800여개의 다방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는 인스턴트커피의 보급으로 커피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전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해져 다방이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방은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상업다방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한국전쟁으로 실업자가 된 1천만 명의 사람들은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때문에 다방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이들을 겨냥해 달걀노른자만 따로 그릇에 담아 커피와 함께 제공하는 노랑커피를 선보이기도 한다.

점차 다방은 더 이상 문인들의 아지트가 아닌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다방은 찾는 이들로 하여금 따뜻한 차로 마음을 달래주는 안식처의 역할은 물론 추억과 이야기거리를 남겨주는 공간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다방은 카페형태의 커피전문점에 게 치어지게 되었다. 90년대 후반에는 커피의 테이크아웃 문화가 더해져 스타벅스를 필두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다방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현재는 '다방'이라는 간판을 단 가게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방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반면 여러 형태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대중들의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천지 속에서도 오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다방들도 있다. 1965년부터 전통을 이어온 대학로에 위치한 '학림다방'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현대적 인테리어와 함께 '다방' 특유의 따뜻한 감성을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는 다방들도 여럿 있다.

요즘 거리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장악한 지 오래다. 이런 카페들은 본사의 방침에 따라 어느 지역의 가게든지 똑같이 정해진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반면, 다방들은 가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특색이 있는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다. 며칠 뒤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면 여기저기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아닌 가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다방'에 들러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 과거 학림다방의 모습



▲ 최근 학림다방의 모습



▲ 1902년 문을 연 '손탁호텔'의 내부 전경

윤지은 기자 yoonzyoon@hansung.ac.kr

홍차의 매력

홍차를 마셔본 적 있는가? 붉은 수색(水色)에 품종에 따라 다양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고, 여름에 차갑게 마셔도, 겨울에 스트레이트로 따뜻하게 마셔도, 우유를 섞어 밀크티로 마셔도 좋은, 홍차를 마셔본 적 있는가.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홍차는 우리에게 낯설지도 모른다. 하지만 커피의 맛에도 지치고, 어쩔지 녹차도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홍차를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

동양권에서는 우라늄 물의 색이 붉다고 하여 홍차(紅茶)라 불리고, 서구에서는 찻잎의 색이 검다하여 블랙티(Black tea)라 불린다. 홍차는 품종에 따라도 맛이 다르고 어떻게 블렌딩을 하느냐에 따라도 그 향과 맛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홍차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 거기에 같은 차라도 브랜드마다 맛도 조금씩 다르고, 다양한 가향차들이 나오니 더욱 다양하게 느껴진다.

홍차,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다. 입문자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홍차는 다즐링(Darjeeling)이다. 맛도 순한 편이고 녹차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심심하다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추천이 많이 되는 편이다. 다즐링

보다 좀 더 진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아삼(Assam)이나 블랙퍼스트(Breakfast) 홍차를 추천한다. 블랙퍼스트 류 홍차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잠을 깨우는 홍차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은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아삼과 블랙퍼스트같은 상대적으로 맛이 무거운 홍차들은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아포가토로 먹어볼 수도 있다. 아삼과 블랙퍼스트같은 상대적으로 맛이 무거운 홍차들은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아포가토로 먹어볼 수도 있다. 아삼과 블랙퍼스트같은 상대적으로 맛이 무거운 홍차들은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아포가토로 먹어볼 수도 있다.

클래식한 맛의 홍차가 지루하다 느껴지면 향긋한 가향차들을 추천한다. 가장 유명한 가향차는 베르가모 향이 첨가된 얼 그레이(Earl Grey)다. 입안 가득 퍼지는 향이 향수를 마시는 것 같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느낌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가향차이다. 특히 얼 그레이는 여름에 시원하게 냉찹을 해 마셔도 좋다. 레몬을 얹게 썰어 띄워 마시는 방법도 많이 애용되고 있다.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브랜드는 아마도 티(Ahmad Tea)와 트와인스(Twinings)다. 아마도 사에서 나온 클래식 홍차들은 정석적인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홍차를 고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거기에 값도 저렴하니 혹시 궁금한 맛이 있다면 구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트와인스 사에는 홍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레이디 그레이(Lady Grey)가 있다. 얼 그레이가 너무 강하다 느껴지거나 혹은 상큼한 향을 좋아한다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어떤 종류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홍차는 다양한 맛과 향을 보여준다. 홍차와 함께 쌀쌀해지는 요즘을 향기롭게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정시경 기자 kyung@hansung.ac.kr



문화읽어주는 기자 오그림

“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차는 낯선가 봅니다 ”

커피 10잔에 우리 차 한 모금

어렸을 적 필자는 가족의 영향으로 다도를 배웠다. 우연한 기회로 몇몇 다도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는데, 교외 대회 상이라 교단에 나가 상을 받을 때면 주위 선생님들은 물론 학교 친구들이 나에게 물었다. “다도가 대체 뭐야?”라며.

“다도는 차를 대하는 정신, 예절을 말한다. ‘다례’라 하는 전통 차 예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다도를 우리나라 차 문화로 뜻을 확대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몇 백 년 전 선조로부터 귀족들의 문화로 고상하게 전해져 온 다도의 이미지 덕분인지 우리나라 차 문화는 현대의 대중들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도리어 1900년대 후반에 급물살을 타고 들어온 커피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료로 되었다.

커피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익숙하다. 국내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거리에 준비한 수많은 커피전문점들로 인해 커피가 갖는 용이한 접근성과 거리를 다니며 마실 수 있도록 한 포장(Take out)커피의 편리성 등은 어느새 우리의 손에 커피 잔이 무색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한 커피전문점 창업회사의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24잔을 마신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물처럼 ‘꿀꿀꿀

떡’ 자연스럽게 마시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처음 커피를 맛보았을 때 “사악의 맛이 이러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필자의 극히 개인적인 여담이긴 하지만, 처음 커피를 맛본 순간부터 커피의 씩씩한 맛이 좋아 매일 같이 커피를 즐겨 찾는 사람이 많아질까.

시원한 냉수를 즐겨 들이키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커피전문점으로 향하게 한 것은 ‘커피문화’의 위력이다. ‘아늑해 보이는 노란 빛의 이국적인 분위기의 가게,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가는 도시사람’ 하면 커피 혹은 커피전문점이 떠오르지 않는가. 매력적인 커피의 문화들이다.

이에 반해 우리 차 문화의 매력의 현 위치는 어떠한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인사동의 한 카페, 정자위 수행하는 스님들, 차인(차를 하는 사람)들만의 개인적 취향 등, 우리 차는 특정 소수의 문화로 취급받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차를 향한 여극간 관심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차는 커피 문화에 치여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커피도 좋지만 우리 차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줄 사람들은 우리뿐이지 않을까.

우리 차는 생각보다 낯설지 않다. 커피전문점에서 녹차라떼는 인기 음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녹차라떼

는 우리 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녹차의 향과 맛이 좋아 녹차라떼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더군다나 우리 차 중 말차(가루형태의 녹차)를 우유에 타먹는 것이 향과 맛을 느끼기에 보다 더 좋을 것이다. 우리 차가 한복같은 사람들이에만 어울릴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좋다는 말이다.

우리 차라 하면 사람들은 쉽게 사무실의 티백녹차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티백녹차로 우리 차 문화를 말할 수 없다. 필자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차는 티백녹차, 딱 그 정도의 무미건조한 존재가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

전통 다도의 미덕은 기다림이다. 차 있을 다루는 것부터 상대에게 차를 권하는 것까지 기다림을 근본으로 한다. 따라서 차는 분명 커피를 즐기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짧을수록 좋은, 거리를 이동할 때의 소요되는 시간 개념과 다르다. 차를 대하는 시간은 단 몇 분의 테이크아웃 커피에게는 얻을 수 없는 자기 자신 혹은 상대와의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차는 단순히 물질적인 양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러니 어느 때처럼 당신이 커피 10잔에 우리 차 한 모금 정도 마셔줬으면 한다. 제대로 된 차 한 모금이면 충분하다.





데메테르 플래그십스토어

데메테르 플래그십스토어에서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다. 먼저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다. 평소 패션 스타일, 즐겨가는 장소 등 개인의 취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 자신이 원하는 향수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향수 디자이너가 이를 보고 어울릴만한 향 일곱 가지를 추천해준다. 일곱 가지를 향을 시향하면서 원하는 향을 세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선택한 세 가지향을 비율을 정해 이를 배합한다. 그리고 빈 용기에 담아 예쁜 라벨지를 붙이면 나만의 향수가 완성된다. 일인당 8만원(50ml)의 비용이 든다. 두 명이 세트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총 16만원이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와 쇼핑몰 할인 등을 활용한다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향수를 만들 수 있다. 가격은 비싸지만 나만의 향수를 만든다는 것과 향기로운 속에서 연인, 친구, 가족과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값어치를 한다. 현재 데메테르 홈페이지에서 할인을 진행 중이다. 11월 30일까지 112,000원(30ml X 2)으로 향수를 만들 수 있다.



한재원 기자
신동석 기자
윤지은 기자



장소 : 압구정 데메테르 플래그십스토어
전화번호 : 070-8654-3067
홈페이지 : <http://www.demeter.co.kr>



가족공방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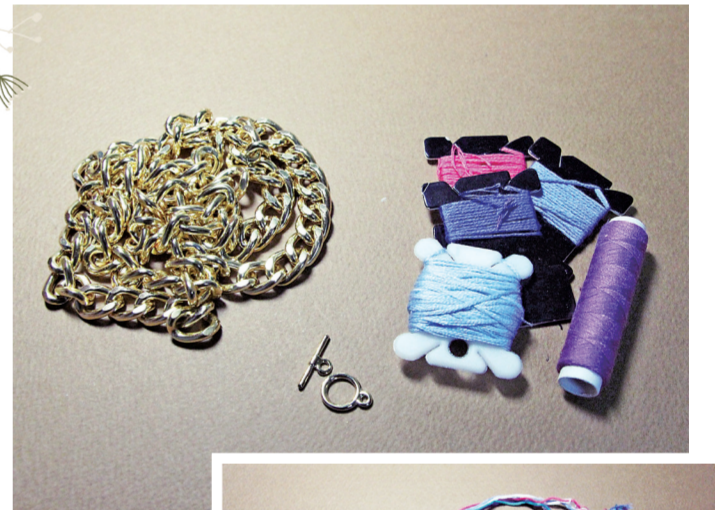
가족공방 블로그는 자신이 직접 가족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은 정규수업과 일일수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일 수업으로 만들 수 있는 공예품은 여권케이스 / 노트 커버 / 다이어리 커버와 같은 (케이스)류, 카드 포켓류, 키 케이스 / 키 링 등을 만들 수 있다. 가족공예품은 집에서 만들기에 전문적인 공구들이 많이 필요해서 혼자만들기 힘들다. 그러나 이곳은 전문 공구들과 만드는 방법,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어 손재주가 없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고 흥미를 붙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하길 바란다.

가격 : 목걸이형 카드지갑 5만원~
장소 : 한성대입구역 3번출구
뚜레쥬르 건물 3층
전화번호 : 070-7699-1228
블로그 : blog.naver.com/bloccostudio



L.M.T! [Let's Make Thing!]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D.I.Y바람'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D.I.Y'는 'Do It Yourself'의 약어로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구입해 가구, 액세서리 등을 제작하는 것을 일컫는다. D.I.Y제품은 직접 만든다는 점에서 공산품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원한다면 본인이 만들고자하는 물건의 제작을 도와줄 공방을 찾아볼 수 있다. 재료 역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L.M.T! (Let Make Thing!). 직접 희소성이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편집자주>



판도라st팔찌

- ① 재료 및 가격
 - 줄: 1500원
 - 구슬: 총 4200원, 마감재: 800원
- ② 제작과정
 - 먼저 줄에 끼우게 될 구슬의 배열법을 생각해놓는다. 그다음 구상해놓은 배열법대로 구슬을 끼운다. 마지막으로 구슬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줄의 한쪽 끝부분에 마감재를 끼워 넣으면 완성된다.
 - 준비된 줄에 원하는 모양의 구슬을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

꽃무늬 줄 팔찌

- ① 재료 및 가격
 - 꽃무늬 줄: 2000원 (1마(90cm) 당)
 - 부속재료: 1000원
- ② 제작과정
 - 꽃무늬 줄을 팔목둘레에 맞춰 알맞은 길이로 잘라 준비한다. 그다음 줄의 양쪽 끝에 짐계모양의 부속재료를 집어준다. 거기에 O모양의 링을 끼우고 마지막으로 고리모양의 부속재료를 연결해주면 완성된다.
 - 재료도 간단히 준비할 수 있고 과정도 간단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체인팔찌

- ① 재료 및 가격
 - 체인: 1m에 3000원
 - 실자수실: 1타래 당 400원
 - 별장식: 1000원 (개 당 500원x2)
 - 마감재: 1세트에 1000원
- ② 제작과정
 - 우선 체인을 자신의 팔목둘레에 맞춰 자른다. 그다음 취향에 따라 한 가지 색 혹은 여러 가지색의 실을 준비해 한쪽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 놓는다. 매듭 묶여진 부분을 잡고 체인 사이를 위 아래로 반복하며 통과 시킨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체인의 양 끝부분에 마감장식을 달면 완성된다. 기호에 따라 완성된 팔찌에 장식을 달아도 된다.
 - 재료상가에서는 체인을 최소 1m당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를 절단할 때 공구가 사용된다. 또한 다른 제작과정도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팔찌 제작 시 손이 많이 간다.